제 820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07년 9 월 30일 ①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롬 13:11)
행동지침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슬픔의 사람 I

(시편 69:1-18)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예수님의 생애는 한 마디로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시편이 메시아 시로 읽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9편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본편은 고통과 화를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본 시가 메시아 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5절)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면서 동시에 우리에 대해 말씀한 것입니다.

본 시는 다윗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우리 자신의 경험과 문제들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이 3개의 주제로 이해하면 시편 69편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애도와 도움을 호소한다(1-4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2절).

우리는 시인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해칠만한 어떤 동기도 원수들에게 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수들은 이유 없이 시인을 미워했고 적대했습니다. 시인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3절). 우리도 이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요15:25의 말씀은 본 시 4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1-4절은 히5:5-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히 5:7), 예수님도 우리를 덮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로 수렁에 빠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결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덮치는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죄에 대한 고백(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5절).

이것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성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도적질하지 않았고 원수들이 자신을 미워할만한 어떤 이유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어리석고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경건한 자로 할 수 있는 한 흠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졌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죄의식이 깊은 법입니다.

3.애도자의 변경된 소리(6-12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7절).

시인은 불의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그것이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이라고 합니다. 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9절)는 렘 15:15과 같은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본 시에는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정확하게 동일시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9절),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음을 말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요 2:17)고 했습니다. 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9절)는 롬 15:3에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적용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시며 사셨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착에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시므로 원수에게 살해 되셨고, 가족에게는 거절당했으며 조롱자에게 비웃음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4절).

예수님은 이 구절을 자신에게 인용하시며 적용시키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8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여 여섯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편안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고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요 7:2-5).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 마디로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인은 수렁과 깊은 물, 큰 물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17절). 이것은 사 42, 49, 50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종으로 노래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모범자이시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특권이고 자랑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도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그와 가깝게 교제함으로 그의 능력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2007 사명자대회 기간 중
태신자 초청 음악예배 드려

10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청년부 헌신예배)

기도와 전도의 장인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리는 10월2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태신자 초청 음악예배를 드린다.

태신자 초청 음악예배는 평양 대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 총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00만인 전도운동의 시범교회로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전도의 열매를 확인하며, 품고 기도해 오던 태신자(배우자,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수준 있는 연주와 함께 교회를 소개하며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이번 행사는 100만인전도운동 본부가 주최하고 대학부, 청년부가 함께 주관하게 된다. 대학, 청년부에 해당하는 젊은이들과 짝믿음 가정(남편/아내), 미등록 자녀, 친지, 이웃, 태신자, 단기전도학교 수료자 중 무결실자는 1명이상 초청토록 하며 1부는 청년부 헌신예배로, 2부에는 음악회를 열어 유명 음악가(Classic 계열- 독창, 중창단, 합창단 등) 초청 연주와 성가 독창, 중창(헵시바중창단), 유명 음악가 연주(CCM 계열, 소향), 단막극(청년부 주관)과 청중과 함께 드리는 찬송으로 진행된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로 사명자 대회 기간 중 태신자를 품고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한다.

영어예배부 담당목사 청빙키로

- 죠슈아 조 목사 -

우리교회는 현재 영어예배부를 담당하고 있는 A. Kinsler 목사가 올해로 은퇴하시게 되어 후임으로 죠슈아 조 목사를 청빙키로 하였다.

죠슈아 조 목사는 1974년 한국출생으로 75년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뉴저지 주립대 졸업(1997),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졸업(2003), 안디옥교회(NJ), 새한교회(GA)시무, PCA 안수를 2006년에 받았다. 가족은 장미혜 선생과 3남이 있다.

천국시민양성

10월7일(주)은 차 없는 주일

최학인 장로 (차량관리부장)

우리는 공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그 중 주범으로 차량이 내뿜는 가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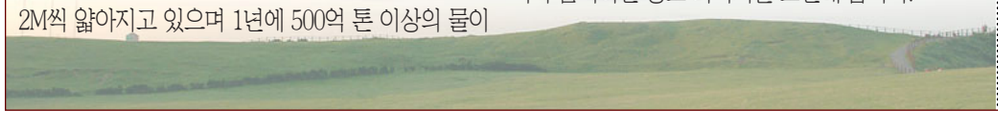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효과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100년까지는 지구의 기온이 1.4도에서 5.8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가 예측됩니다. 그 결과로 홍수, 가뭄,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난화 현상의 결과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감으로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의 상승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2000년 7월 NASA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내려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의 두께가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으며 1년에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 해수면이 0.13mm 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대책으로 에너지 자원 절약의 시책입니다.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이용, 카풀(Car pool)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냉난방 에너지, 전력 절약 등입니다. 또한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 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생활화해야 하며 온실가스의 과부하 때문에 생겨나는 지구의 온난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대중교통이용은 온실가스 퇴치에 필수적인 해결방안이며 두 사람분의 휘발유로 15명이 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버스나, 적은 전기 사용으로 무수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퇴치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록 하루일지라도 우리교회는 10월 7일을 차 없는 주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조금이나마 아껴 쓰며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검도교실 열린다

10월 13일(토) 오후 3시 9층

우리교회에 지역 사회에 열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검도교실이 열린다.

검도교실은 건전한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교회학교 전도(선교)에 이바지하고 학생들의 정신수양과 정신 집중, 기초체력 단련, 교회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검도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회당 1시간 수련) 9층에서 열리며 주중에는 개인연습을 한다. 첫 개강은 10월13일(토) 오후 3시 9층에서 열리며 등록비는 10,000원이다.

지도는 정찬주 집사(3교구 대한검도회 공인 4단)가 한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선교사 차량을 구합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교도소 소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용진 선교사가 작은 트럭 한 대를 요청해 왔다.

공용 교통수단이 자전거인 열악한 현지에서 교도소 건설 사역을 위해 자재를 운반할 때마다 트럭을 임대하다 보니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1톤짜리 픽업트럭(기아 자동차 현지가격 약 20,000달러)1대를 구입하고자 한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대한다.

금주의 성구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출 23:15-17)

"Celebrat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for seven days eat bread made without yeast, as I commanded you. Do this at the appointed time in the month of Abib, for in that month you came out of Egypt. "No one is to appear before me empty-handed. "Celebrate the Feast of Harvest with the firstfruits of the crops you sow in your field. Celebrate the Feast of Ingathering at the end of the year, when you gather in your crops from the field. "Three times a year all the men are to appear before the Sovereign LORD.

(Exodus 23:15-17 [NIV])

개천절을 맞이하여...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

지난 2월 23일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 역사 교과서의 상고사 부분을 일부 고친 개정교과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 관련 대목이 있다.

기존 교과서에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기원전 2333)"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로 고쳤다. 즉, "건국하였다고 한다"를 "건국하였다"로 바꾼 것이다. 단순히 문헌으로 전해 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식에서 그치지 않고,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신화에서 공식 역사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단군상 건립을 적극 반대해온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공식 역사로 편입시킨 이번 역사 교과서 개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입장부터 살펴보자. 지난 98년부터 한 민간단체가 전국에 3백60여개의 단군상 건립을 세우면서부터 반대운동을 펴온 한기총은 특정단체가 공공장소와 학교에 단군상을 건립하고 숭배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우상숭배 및 신격화로 의식화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다시 말해 기독교계는 단군을 신격화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우리의 공식적인 역사로 삼는 것에 반대해 온 것은 아닌 만큼, 교과서가 그렇게 바뀐 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우상숭배 행위는 단호히 배격,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단군의 건국신화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물론 신화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 다만, 단군이란 사람이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사람인지 허구의 인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옛 문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의 역사학계는 이제 단군이란 인물을 실제 인물로 간주하고 교과서를 통해 우리 역사상의 인물로 인정한 셈이 됐다. 이는 이병도 등 식민사관을 펴온 학자들이 단군의 건국을 신화 속 이야기로 지나치게 격하시키면서 단군을 아예 허구의 인물로 만들려고 했던 면이 있는 만큼 이를 교정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훼손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단군상 건립 반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사이, 정작 단군상 건립을 추진해온 단체들은 엉뚱하게도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역사 왜곡 시도에 맞서면서 "우리 역사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맞서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임을 천명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사 왜곡에도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개천절과 단군을 추앙하는 '우상숭배'행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하지만 우리의 옛 역사를 거짓 없이 바로 잡는데 기독교인들이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김민철 (편집부)

천국시민양성 –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며..

진리를 토하는 교회

김인호 목사
(임마누엘 교회 ,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 동문회장)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를 이루고 있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향락과 퇴폐의 밤 문화에 젖어 온갖 더러운 물을 마시고 곪아가고 썩어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해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외치는 진리의 소리는 듣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큰 고통은, 진리를 찾는 신령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함에 목마르기보다 술에 목마르고, 음란에 목마르고, 죄악에 목마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정과 부패에 목이 마르고, 우상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해지고 가정은 흔들리고 나라가 시끄럽고 사회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신령한 하늘 샘이 터진 교회, 진리를 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교회입니다!

죄와 음란의 구정물로 죽어가는 이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는 진리의 샘터입니다. 이곳엔 목회 현장에서 지쳐 힘겨워 하는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는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옥같은 마태복음 강해로 목마른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시원한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이종윤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또한 이 시대에 귀한 하늘 쉼터입니다. 월요일마다 고운 한복차림으로 친절하고 환한 미소로 목회자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모습! 다정하고 겸손하게 손을 내미시는 장로님들! 따뜻한 차를 밝은 미소로 내어주시며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정겨운 집사님들! 깨끗하게 정성을 담아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늘 쉼터의 손길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 샘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 쉼을 얻는 자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 시대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온갖 더러움을 꾸짖고 참된 진리를 일깨우는 진리의 샘터, '서울교회'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심령들이 변화 받고, 생명들이 소생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호색하지 말고, 이 오염된 세상으로 나가 하늘 샘 생명수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때입니다. 서울교회를 통해 공급받은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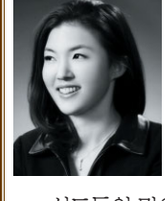
2007 가을 시즌 제8회 화요정오 음악회

Chamber Music with Organ

2007 가을 시즌 제8회 화요정오 음악회가 10월 2일(화) 정오 본당에서 바이올린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를 시작으로 11월6일(화)까지 계속된다.

이번 시즌 첫 연주회는 바이올린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로 바이올린 연주는 김현남 선생, 오르간 연주는 안소이 선생이 담당한다.

김현남 선생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Freibug 국립음대(Aufbaustadium), Trossingen 국립음대(Konzert Examen) 졸업, 스위스 Neue Basler Orchestra 수석으로 활동, 경기예고 협성대학교 숭의여대 출강,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소이 선생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석사(M. M),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박사(D. M. A), 2006 칼를렌 나이하르트 국제 오르간 콩쿨 1위, 연세 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관람은 본당 3층에서 하도록 개방된다.

천국시민양성 –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고

말씀으로 받은 한가위선물

유선희 집사(1교구)

성경일천독에 참여하면서 매일 매일 몇 장씩은 읽었지만 상반기까지 일 독을 마치려했던 나의 계획은 어림없게 되었다.

7월29일까지 구약을 다 읽었으나 아이의 열흘간 병원 입원과 그 후 신경 쓸 일로 여름휴가까지 날아가 버리면서 8월이 훌쩍 지났고 매주일 5층 벽에 붙은 통독자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만 조급해졌다.

출퇴근 전철 이용을 왕복 2시간 이상하면서 성경책을 보기도 하고 사무실에 있는 책으로 보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가서 이번 추석연휴에 다른 계획 안 잡고 성경읽기를 끝내야지 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추석 연휴에 신약 통독사경회를 한다고 해서 순간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접수를 했다.

▶ 성경통독사경회 참석자들(9월25일)

평소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일은 추석날 당일의 시작 시간(8시)이 좀 무리이긴 했으나 힘써 참여하기로 했다.

집에서는 8시간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성경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교회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끝내고 보니 참으로 뿌듯했다.

눈이 따라가기 바쁘게 읽어나가는 목사님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참여한 교인들의 열성과 의지도 대단해 보여, 새삼 내가 서울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마음 든든해졌다.

앞으로는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주변 환경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화용 성도(1교구)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었습니다. 연휴 첫날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열린 성경통독 사경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성경 1독을 목표로 온 가족이 열심을 내어 읽고 있는데 이번 추석 성경통독 사경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긴 시간동안 한 번에 성경을 읽어 본 경험은 저에게 처음이었는데 부분 부분 나누어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번에 이어 읽어 나가게 되니, 어떤 이야기들은 각각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쓰여졌음에도,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같은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이 사실이 맞구나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것들은 복음서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며,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들을 기억하여 비교하며 뒷내용을 읽게 되니,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예수님과의 경험을 각기 다른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비교하며 읽는 재미도 있었고, 또 한 인물이 각기 다른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여러 편의 글을 한 번에 읽으며 각 사람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통독 사경회를 통해 가족과 더불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추석에 성경을 읽기 위해 모인 어린 아이부터 학생, 어르신들 등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한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먼저" 운동〉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실 때!
"먼저"운동 실천으로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나눕시다

1. 노약자와 장애우 그리고 새가족을 "먼저"
2. 인사는 내가 "먼저"
3. 실천은 종직자가 "먼저"

특별찬양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의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안병준 선생과 배영광 선생 등 두 명의 명쾌한 테너가 드리는 찬양순서를 갖는다. 안병준 선생은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인천 신현감리교회 '닛시' 찬양대 지휘자이며 배영광 선생은 단국대학교 성악과에 재학 중이다. 오늘 드릴 찬양은 축복하노라(신상우 곡) 외에 세 곡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4일(목) 선교사 후보 면담, 5일(금) 한국 성서학 연구소 제1회 성서학 학술마당 축사를 한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 이사 : 5교구 김중근 집사 최혜순 권사 가정/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꽃뫼마을 한라신영프로방스 아파트 601동 1804호 T. 031-306-1800
1교구 서경학 집사 이영숙 권사 가정/ 대치동 633-22 하광엘피스빌 101호

■ **주간 식당 봉사:** 권사회(9.30) 빌립선교회(10. 7)

■ **금주의 식사 :** 김사라 권사(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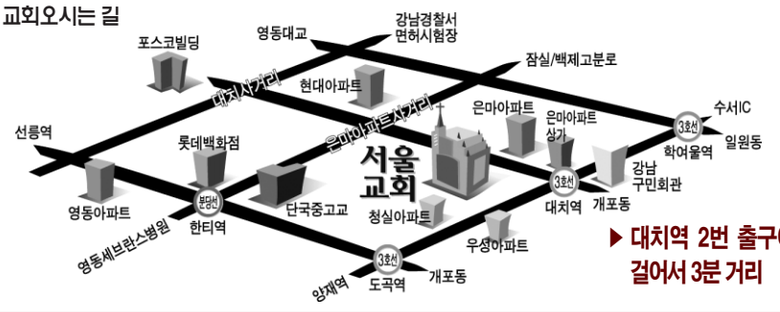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 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2.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3. 다락방마다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하도록
4. 2007 사명자대회(10월7일-11월25일)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5.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